

# 녹용과 사슴피는 한약제로 안정한가



**장철봉**

미국 Rose Glauson Animal Hospital 원장,  
국제수의침구사협회 공인수의침구사  
cbchangdvm@gmail.com

필자가 20~30여년전에 살았던 미국 북가주 산골동네는 사슴이 많았다. 집주위엔 사슴들이 자주 넘어와 배추, 상추는 물론 장미 꽃봉우리 마저 깡그리 먹어 치우기에 절망을 높이 뻗들려 쳐 놓아야 했다. 그 지역 시골길엔 방금 차에 치어 죽은 나이 솔찬 숫사슴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들의 뿔은 여러가지로 길게 뻗쳐 있었고 만지면 탕약주머니속에서 보약이 터져 나올 듯 힘차게 부풀어 있었다.

필자가 35여년전 미국 켄터키 대학에 유학와서 야생동물학을 전공하였는데, 야생동물 중 사슴을 택했다. 솔직하게 회고해보면 사슴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단지 녹용 등 한방약제를 나 자신 취득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켄터키의 자연은 한국과 비슷하다. 사철 뚜렷한 기후변화가 있는 것도 비슷하고, 위도와 지형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한국의 산과 들에 있는 식물이 대부분 분포한다. 물론 야생인삼도 많다. 이같은 식물을 먹고 자란 사슴이니, 한국에 있는 사슴의 녹용과 켄터키 사슴 녹용이 한의학적 약제로 비슷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필자는 논문 작성을 위해 사슴 60여 마리를 주정부 허락하에 사냥해서 조사연구하였다. 대부분의 사슴피에는 기생충이 있었지만, 소와 같이 방목하는 사슴의 피에서는 기생충이 더 많았다. 또한 5월에 채취한 사슴뿔에는 테스토스테론이란 남성 호르몬 함양이 일년 중 제일 많이 검출되었다.

한방약제는 약물의 편성, 즉 오미(신, 감, 산, 고, 함, 다섯 가지 맛을 의미하는 오미)와 사기(열, 한, 온, 량, 네가지 체감을 말하는 사기)로 분류해서 처방법을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방에선 나쁜 기(사기)가 몸에 침입해서 발병하게 된다는 감기같은 질환에는 매운 맛의 약초로 나쁜 기를 발산시켜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든가, 열이 있으면 찬 약제로 더운 몸을 식히는 것이 한방제의 기본이론이다.

녹용은 담담한 또는 감미로운 맛이 있으며 따뜻한 느낌이

난다. 그러기에 이같은 성질, 즉 한방용어로 이같은 편성을 갖춘 약물은 양기를 보하고 몸이 차게되는 허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보양약으로 분류된다. 녹용은 보양약 중 으뜸으로 치고 있다. 하지만 녹용이 한방이론으로 중요한 약제의 단초가 되는 느낌과 맛을 제외하고는, 화학적, 의학적으로 왜 훌륭한 보양약인지 규명된 것이 아직 없다.

35년 전 나의 연구에서는 사슴의 새로 자란 뿔이 아직 골화되지 않을 5월경의 사슴뿔, 즉 녹용엔 남성 호르몬이 다른 계절에서 채취한 사슴뿔에서 보다 더 많이 검출되었다. 그래서 말랑말랑하게 부풀어 있는 사슴뿔 즉 최상가로 거래되는 5~6월에 채취하는 녹용이 보양제 및 정력제로 각광받게 되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한국엔 사슴피를 '종합보약탕제'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전통한약서에는 사슴피가 한약제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슴피를 그냥 마시면 기생충도 마시게 된다. 필자가 사슴피를 5일간 배양해서 아본 연구에 의하면 사슴피에는 Trypanosomes인 Protozoa가 많이 기생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사슴피를 그냥 마시면 기생충도 그냥 마시게 되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단정 지을 수 있다.

피에는 물론 단백질을 위시하여 여러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것은 다른 영양소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가난하고 못먹던 시절 사슴피라도 여북하면 허약함을 별충해 주었겠지만 요즘의 보신제 또는 보양제로서는 제격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사슴을 야생동물이라기보담 농장 철책안에 가두어 사육하기 때문에 가축으로 지정하고 있다. 농장에서 사육하면 기생충도 더 많아지고 또한 자연에 있는 인삼같은 약초를 사슴이 먹지 못해 녹용에서도 한의학적인 효능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 사슴에서 한약제를 얻고자 한다면 야생동물로 재분류해서 야산에서 사슴을 살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